

## Story 22

박 \* \* 사학과 2021년 졸

### 지역인재 7급 공무원 행정직 분야 합격스토리

- ▶ **합격기업**      지역인재 7급 공무원
- ▶ **직무**            행정직
- ▶ **스펙**            학점: 4.11  
                      토익: 820점
- ▶ **인턴**            광주국제교류센터 현장실습 (15주)
- ▶ **봉사활동**      2016 무등육아원 교육봉사  
                      2017 5.18기념재단 자원활동가
- ▶ **자격증**         한국사능력시험 1급



## 1. 들어가며

간절히 원하던 목표를 이루고 합격수기를 쓰게 된 지금, 저는 이 순간이 매우 소중하게 느껴지고 행복합니다. 저의 합격수기가 또 다른 학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해 작성하겠습니다. 많은 합격수기에서 보았던 말인데 합격한 사람 수만큼 합격방법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저의 수기를 하나의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되, 본인만의 좋은 방법을 찾으시길 응원합니다.

저는 본래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호감을 가지고 있기도 했고,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거뒀던 저에게 주어진 이 지역 인재 전형이라는 기회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문화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저의 목표와도 근접하고 연결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 2. 1차 필기시험 준비과정

저는 2018년 여름, 지역인재 제도를 처음 알게 되었고 교내 지역인재 7급 준비반에서 PSAT강의를 들었습니다. 이후 2018년 하반기에는 토익, 한국사 등 선발자격을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하였고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다시 공부를 시작하여 행정고시에 응시하였습니다. 성적에 변수가 생겨 조건을 채우지 못한 상황이기도 하였고 공부기간,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2020년 전형에 도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행정고시 응시경험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도전하는 분이라면 행정고시에 응시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이후 2019년 상반기동안 학업을 수료하고 여름에 본격적인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 강의를 통해 학습도움을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강의를 중심으로 공부하였고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10~11월까지의 기출분석을 병행한다는 전제 하에 다양한 강사들의 강의를 얼마든지 많이 들어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을까지 다양한 강사들의 강의를 들으며 **저에게 맞는 방법을 체화했고 결과적으로는 저만의 전략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제공하는 모의고사 응시기회는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가 실력향상에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의고사의 경험이 많을수록 본인만의 시간운영, 문제풀기 전략을 더욱 용이하게 세울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추가로 모의고사는 점수의 변동이 크기도 하고, 앞서 말했듯 기출과 결이 다르기도 합니다. 때문에 점수에 연연하며 일희일비하기보단, 본인의 실수 패턴을 파악하거나 성향을 파악하는 용도라고 생각하면서 자신감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2019년 여름, 행정고시반에 들어가서 공부하였습니다. PSAT 인강을 지원받기도 하고 반 내에서 PSAT스터디를 만들어 매주 시험 시간표대로 모의고사를 응시하고 함께 리뷰하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혼자서 분석하고 풀어보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스터디의 도움이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방법을 배울 수 있고, 저의 실수나 실력을 더욱 자명하게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정고시반에 들어가지 않는

다고 해도 교내에서도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스터디를 구할 수도 있고 강의를 함께 들을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은 크게 연연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1) PSAT 공부 방법

좀 더 구체적인 저의 몇 가지 공부 방법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킹용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마킹용지는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서 올해 시험 안내 공지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출회독을 2번 정도 한 이후부터는 모의고사와 기출문제 모두 가급적 실제크기로 인쇄하여 마킹연습을 함께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피셋은 40문제를 다 풀고 다 맞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감을 지닌 채 정해진 시간 내에 어떤 문제를 풀고 어떤 문제를 넘길 것인지를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탑워치로 정확한 시간을 재고 마킹용지를 이용해서 진짜 시험에 어떤 문제를 넘기고 어떤 문제를 빠르게 풀 것인지 훈련을 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기출문제의 반복입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2012-2019까지의 기출을 10회독 정도 하였고, 자료해석은 별도로 20회독 이상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2008-2011은 지금과 유형에 차이가 있다는 한 강사님의 말에 5회독이하로 하였는데, 최근은 다시 오래전 유형이 반복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으니 본인의 시간과 역량에 맞게 범위를 정해서 반복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기출은 반복한 수보다 **중요한 것이 분석**입니다. 어느 정도 기출문제가 익숙해진다면 그 이후엔 어떤 스킬이 중요했는지 혹은 다른 문제에서 반복된 적이 있는지, 실전에서 풀게 된다면 선택할 것인지 넘길 것인지 등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인만의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언어논리 지문분석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차가 특히 더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받아들여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처음 PSAT을 시작할 때 저는 독해연습 용도로 매3비를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직 피셋 문제에 대한 이해가 정착되지도 않았고, 기출유형도 다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능용 지문을 독해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 저는 실력이 쌓이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매3비 내에서도 어떤 지문이 PSAT과 비슷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독해연습은 PSAT 기출(민경채 7급, 5급공채)을 반복하되 별도로 박은경 강사님의 100문 특강을 이용**했습니다. (100문특강의 경우, 타 기출이 많이 있지만 PSAT과 유사한 기출들로 추려져 있기 때문에 유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당부 드리고 싶은 부분은 헌법입니다. 올해는 헌법이 비교적 쉽게 출제되어 헌탈비율이 굉장히 낮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가 쉬웠다고 내년도 쉬울 것이라고 쉽게 확신할 수도 없을뿐더러 헌법의 통과여부 하나가 피셋 점수에 상관없이 합불을 가른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절대 방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역시 개인 차이가 존재하겠으나, 저의 경우는 헌법을 넘칠 정도로 공부하였습니다. 후에 PSAT점수가 아닌 헌법 때문에 불합격한다면 그 괴로움이 더 클 것 같아 두렵기도 하였고, 헌법이 시험의 첫 시작인 만큼 '잘 봤다'는 기분이 그 다음 시험을 좌우할 것 같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본강의 후 10월까지 최소 일주일에 2-3번 2시간은 복습하되, 이후에는 심화강의나 모의고사강의를 수강하며 속도감있게 공부하며 반복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 3. 2차 면접시험

1차 필기시험에 응시 후 가채점한 결과로 합격예측사이트에서 점수를 비교 후, 필기시험 통과를 예상하고 바로 면접 학원에 접수하였습니다. 대부분이 서울에 있는 몇 면접학원에 등록하여 면접시험을 준비하기 때문에, 저 역시 서울에 있는 학원에서 면접을 준비하였습니다. 평소 본인의 진로를 위해 노력한 경험이 많으면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주변엔 특별한 경험 없이 평범한 학업생활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런 부분과 관계없이 합격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면접은 해마다, 개인마다, 조마다 다양한 차이가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분들께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겪었던 면접상황을 기록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면접 당시의 상황을 완벽히 생각해내는 것에 한계가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 복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개인발표 (소상공인 관련 발전,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Q1. 자료에서 보았듯이 소상공인 관련한 문제가 늘 존재해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1.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배경이 큰 이유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60-70년대에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대기업 중심의 성장이 지속되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제도, 지원을 마련하는 것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와 사회가 소상공인 산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깊이 인지하고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는 만큼, 개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Q2. 자료에서 제시된 방안 외에 '소상공인 멘토멘티제'를 작성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A2. 저는 최근 방송하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인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작성해보았습니다. 소상공인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몇 멘토들이 소상공인의 운영 노하우나 체제를 제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멘토의 입장에서라도 이미지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Q3.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에 대해 적은 것들 중 제일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3. 첫 번째에 기재한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립 및 처벌규정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불공정행위를 엄격하고 정확하게 개선하여야 발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고센터를 만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신고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상공인들에게 교육하는 과정이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 개별면접 경험제시형 (기한 내에 끝내야 하는 것이라 완성도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은 경험)

: 저는 광주국제교류센터에서의 업무경험을 기록하였습니다.

Q1. 작성한 경험은 완성도와 기한 지키는 것을 모두 잘 수행한 것 같은데, 분명 양자택일의 상황이 존재할 수도 있다. 무엇을 더 중시하겠는가?

A1. 오직 한 부분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먼저 기한을 엄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완성도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부분은 양해를 구하여 기한 내에 완수 후 다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을 벌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한을 지키는 것은 업무 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성도에 아쉬움이 크더라도 기한 내에 수행하는 것이 당사자인 민원인이나 동료, 선배님과 함께 하는 업무현장을 생각할 때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Q2. 평소 업무처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

A2. 저는 시급성과 중요도 두 가지를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합니다. 먼저 앞서 답변 드렸듯이 저는 기한을 엄수하는 것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가장 시급한 업무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이후에는 업무의 경중이나 중요도의 정도를 따져서 생각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중요도를 염두에 두며 업무를 수행할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동료들의 도움을 받거나 상사의 조언을 받을 때 더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Q3. 이 기관에서 근무하는 동안, 갈등을 중재해본 경험도 있나요 ?

A3. 제가 주로 맡은 업무는 터키문화체험 수업을 운영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한 명의 원어민과 한 명의 직원이 같이 일하던 보통의 상황과 달리 조금 특수한 상황으로 저는 두 명의 원어민과 함께 협업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수업내용 회의마다 터키 강사들 간에 크고 작은 갈등이 자주 빚어지곤 하였습니다. 이 갈등 중재를 위해 제가 추가 근무를 통해 강사들마다 별도로 수업자료를 제작해주기도 하고, 회의시간 외에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대화하고 친밀감을 쌓을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 3) 개별면접 상황제시형 (도시재생사업 확정된 지역 현장조사를 해야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 7일 내에 마무리해야 하며, 운영지침은 부재한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 저는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며 기한 내에 현장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작성하였습니다.

Q1. 기한 내에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대로 강행할 것 인가요?

A1.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선을 다해 설득을 하되,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협상방안을 제시하고 단계적인 시행을 약속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단계적 시행과 인센티브 방안으로 설득과 대화가 된다면 현장조사는 시기 내에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Q2. 그건 너무 강압적인 시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나요? 송전 밀양탑 사건에 대해 알고 있나요? 그렇게 강행하면 주민들이 다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질문으로 2-3번의 압박 질문을 받았습니다.)

A2. 저는 시행 전 '조사' 단계라는 점에 초점을 두어 주민들과의 대화, 설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기간 내에 완수하겠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하지만, 면접관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니 기간 내에 시행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기간을 늘리는 부분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면 기간에 여유를 두고 주민들과 완전한 대화와 협상을 해내야 할 것 같습니다.

Q3. 주민들에 대한 완전한 설득보다 기간 내에 완수해야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 이렇게 작성했겠죠? 그 이유는요?

A3. 당연히 직접적인 정책의 당사자가 되는 주민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배려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기간 내 완수하는 것을 중점으로 적은 것은 장기적인 관점을 생각해서였습니다. 기간에 변수를 둔다면 후에 비슷한 사업을 또 다른 지역에 실시할 때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는 또 다른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시행할 땐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Q4. 이런 문제는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A4. 저는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정확한 규정과 그 기준이 없었고, 이에 따라 정책 실행에 장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더 구체적인 상황을 규정하는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Q5. 그럼 어떤 지침을 만들어야 할지 3가지 정도 이야기 할 수 있나요? 너무 어렵나요?

A5. 아닙니다. 어려워도 답변해보겠습니다. 우선 주민들의 찬성 비율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내에서 도시재생사업에 응모하기 전에, 일정 찬성비율에 도달하는 것을 선발조건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장 조사 직원을 추가 배치하는 것입니다. 부처에서 서류로 판정하는 것에 앞서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먼저 선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소폭의 범위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이유도, 운영지침이 미비하여 융통성을 발휘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면접은 코로나로 인해 면접시간이 기존보다 10분 단축되면서 신상질문 시간이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작성 외에 두 개정도의 신상질문을 받았고, 다른 스터디 원 같은 경우는 하나도 받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내년은 어

면 상황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역인재 면접 같은 경우는 준비기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신상질문도 어느 정도 철저히 준비하는 편이 더 좋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4. 마치며

마지막으로, 제 글을 읽으시고 '이런 사람도 했으니 나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노베이스 점수'라고 부르는 저의 첫 피셋 점수는 정말 낮았습니다. 총합이 100점보다도 한참 낮았고, 가장 잘 본 과목이 과락을 겨우 넘은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겨울에 교내선발이 예정되어 있는데 가을이 끝나갈 때까지도 모의고사 점수는 항상 하위권이라 많이 낙담하고 조급해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애써 불안한 마음을 외면하고 묵묵히 노력을 지속하니, 끝내는 실력이 점점 올랐고 결과적으로 합격하기엔 충분한 점수를 얻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PSAT 자체가 낮설고 난이도도 있기 때문에 점수가 오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많이 가질 것이고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적어도 이 전형에 합격할 수 있는 점수까지는 노력이 전제된다면 충분히 오를 수 있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PSAT은 특히나 초반에 실력이 오르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이 조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감을 잃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장기적으로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부디 본인에게 맞는 본인만의 방법을 찾아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순간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